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의식 척도 타당화

안 선 미¹⁾

현 영 권^{*}

비판적 의식 척도(CCS: Critical Consciousness Scale)는 Diemer와 동료들(2017)이 개발한 척도로서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며 인지된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행동의 정도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변안한 비판적 의식 척도를 현지화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심리학 관련 석사 및 박사 5명에게 변안 문항의 적합성을 평정하도록 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전국 대학생 314명을 대상으로 비판적 의식 척도, 기회불평등인식 척도,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 사회 참여 척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를 설문조사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3개의 하위 요인을 확정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원안의 22개 문항 중 14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요인분석을 마친 14개 문항의 구인타당도와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또한 비판적 의식 척도와 유사 척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비판적 의식은 유사 척도와 상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났다. 비판적 의식은 기회불평등인식 척도,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 사회참여 척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판적 의식 척도는 타당도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를 논하였다.

주요어 : 비판적 의식, 불평등 의식, 사회 정치적 참여, 평등주의, 청년 문제

1)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교신저자 : 현영권,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박사과정,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E-mail: hyks79@dankook.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현대 한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금수저, 흙수저 등의 표현으로 자신의 삶을 계급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미래가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부모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다는 패배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 퇴색하고 결과로 이르는 과정 자체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청년들에게 널리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조사에서 대학생의 73.6%가 한국 사회는 ‘불공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희웅, 2010). 이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안계환, 김민희, 2020).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통계청(2023)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볼 수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은 2020년 기준 9.0%로서 10명중 1명이 직업을 가지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인사정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구직 활동을 못한 잠재 취업 가능자 및 잠재 구직자 등을 실업자에 포함한 확장 실업률로 확인하면 청년실업률은 17.6%로 늘어난다. 한창 자신을 개발하고 일을 해야 할 나이인 청년 중에서 5명 중 1명이 무직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삼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라고 자조하는 현상으로 연결된다(안계환, 김민희, 2020).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러한 청년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사회적 배제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지만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된 상태 혹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강신욱 등, 2005; Kieselbach, 2013). 여기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빈곤, 실업, 저소득과 같은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공공 제도, 사회적 관계, 사회심리적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상황들을 분석한다. 이는 청년들의 문제가 청년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이성균, 2009).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청년세대들에게 개인의 능력 및 역량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의 변화 요인으로 비판적 의식을 제시한다. 비판적 의식은 외국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Freire, 2021; Hernández et al., 2005; Martín-Baró, 1996). 브라질의 교육운동가 Freire는 비판적 의식의 개념을 제안하며 개인들이 사회적 지위 및 환경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렇게 지각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개인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모순을 지각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Freire, 2021). 여기서 그는 사회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과 사회구조적 문제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Diemer & Blustein, 2006; Freire, 2021). 이렇게 원래 비판적 의식은 사회 소외 계층이 주체성을 가지고 사회의 제약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장벽들과 제약들의 부정적인 영향 감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김태선 등, 2020). 여기에 더해 현대에 와서는 비판적 의식이 사회 소외 계층만이 아니라 주류사회 구성원에게도 필요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 정치적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라는

인식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Grzanka et al., 2017; Watts et al., 2003). 이러한 인식의 확장은 비판적 의식을 가진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Shin et al., 2016; Watts et al., 2003).

비판적 의식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비판적 반영이라는 단일요인으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고 비판적 반영과 비판적 행동이라는 2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Diermer & Li, 2011; Watts & Abdul-Adil, 1997). 최근에는 비판적 의식을 비판적 반영, 정치적 효능감, 비판적 행동의 3요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Watts et al., 2011). 비판적 의식의 하위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판적 반영은 사회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 및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각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비판적 행동은 지각된 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적 혹은 집단적 행동을 의미한다.

비판적 의식은 여러 이론에서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다. 비판적 의식은 소외 계층의 진로정체감, 진로몰입, 일 중시성 및 결과기대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Diemer & Hsieh, 2008). 따라서 PWT(Psychology of Working)에서는 소외 계층 청소년들의 비판적 의식이 강화되었을 때 스스로의 불평등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 사회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게 되어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 상황에 저항하여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안진아, 정애경 2019). 또한 사회 정치적 발달 모델에서 비판적 의식은 발달적 관점을 가진 개념으로 보고 있다. 사회 정치적 발달 모델에서는 비판

적 의식의 강화를 5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비판적 의식의 강화를 통해 개인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의 단계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Watts et al., 1999).

상담 과정에서도 비판적 의식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상담자는 비판적 반영의 개념을 통해 내담자와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에 사회구조적 문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자신만의 책임으로 귀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담자가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자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Major et al., 2003; Kenny et al., 2019). 또한 비판적 반영을 넘어서서 정치적 효능감을 통해 비판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사회적 분노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척하게 된다(Christens et al., 2013).

외국에서는 비판적 의식의 경험적 연구가 국내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업 및 진로, 정신건강 등에 대해 비판적 의식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이런 연구의 결과는 비판적 의식을 가진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여러 제약에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Ramos-Zayas, 2003; Watts et al., 1999). 사회 취약 계층 청소년 대상 종단 연구에서도 비판적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적 기대가 높아져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높은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Diemer, 2009). 또한 높은 수준의 비판적 의식은 미국에서 성인들의 약물 남용을 줄였고 도시지역 흑인 청소년들

의 정신건강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Windsor et al., 2014; Zimmerman et al., 1999).

이렇게 외국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비판적 의식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판적 의식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원인에는 비판적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청년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부각되면서 청년들의 사회 참여로 연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정한울, 이관후, 2018).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비판적 의식 척도는 한국 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의 학술대회에서 2017년도에 발표된 김태선과 신주연의 연구뿐이었다(김태선 등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자기 미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심리학 분야에서의 비판적 의식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 비판적 의식 척도를 국내 현실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성 검증을 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비판적 의식이 청년 문제의 전반에 어떤 작용을 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비판적 의식 척도 선정

세계적으로 최근 10년간 개발된 비판적 의식 척도는 6개였다. 이는 사회정치적 의식 척도(SPC: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Scale, Baker & Brookins, 2014), 비판적 의식 조사(CCI: Critical Consciousness Inventory, Thomas et al., 2014), 청소년의 비판적 의식 평가(MACF: Measure of Adolescent Critical Consciousness, McWhirter &

McWhirter, 2016), 비판적 의식 척도(CCS: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Diemer et al., 2017), 최신 비판적 의식척도 I, II(CCCM; Contemporary Critical Consciousness Measure, Shin et al., 2016, Shin et al., 2018)이다. Warts와 동료들(2011)은 비판적 의식의 하위 요인을 비판적 반영, 정치적 효능감, 비판적 행동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비판적 반영이 포함된 척도는 SPC, CCI, CCS, CCCM I, II이며, MACC는 정치적 효능감을 의미하는 비판적 동기를 포함하고 반면 비판적 반영은 포함하지 않았다. 비판적 행동은 SPC, CCI, CCS, MACC에 포함되었다. CCCM I, II는 비판적 반영 단일요인으로 비판적 행동에 대한 제시가 없어서 배제하였다. MACC는 청소년 대상 척도이고 비판적 의식의 비판적 반영을 제시하지 않아서 배제하였다. 이후 SPC, CCI, CCS 척도를 비교하여 국내 사정에 비교적 적합한 문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Diemer와 동료들의 2017년 CCS의 22문항을 번안하여 타당화 하기로 하였다.

연구 방법

문항 번역

본 연구의 연구자 2인이 문항 번안을 하여 합의한 후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상담심리전문가 1인과 임상심리사 자격을 가진 상담심리전문가 1인의 검토를 거쳐 구성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며 한국어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수정본에 대한 역번역을 수행

하여 역번역 문항과 원문항의 차이에 대해 본 연구자와 상담심리전문가 1인 및 역번역자가 상호합의하여 의미의 이해에 문제가 없다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먼저 1번, 3번, 6번 문항의 “Certain racial or ethnic groups”를 직역하면 “특정 인종 또는 민족 집단”이 되지만 한국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설문 대상의 배경이 고려된 중의적 표현으로 “특정한 출신 배경”으로 수정하였다. 1번과 2번 문항의 “High School”은 미국의 고등학교 진학률과 한국의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여 “고등학교”를 “고등교육”으로 수정하였다. 9번 문항의 “civil right group”은 “민권 단체”를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시민 단체”로 수정하였다. 10번 문항의 “Participated in a political party, club”는 “정당, 클럽”에서 “정당, 정치 관련 모임”으로 수정하였다. 11번 문항에는 한국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letter”를 “인터넷 게시판”으로 수정하였다. 12번 문항의 “a public official”은 “공무원”에서 “공공기관”으로 수정하였다. 번안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 2인과 전문가 3인이 모든 문항이 국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원척도의 구성 개념을 반영한다고 동의하여 문항 삭제 없이 타당화하기로 하였다.

조사대상

자료 수집은 연구자 2인이 직접 수도권 5개 대학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지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하였고 조사 대상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20명이었다. 설문 시작 전 연구 목적 및 비밀보장, 연구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하였고

동의를 한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참여자들에게는 기프트콘을 제공하였다. 이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답변 누락이 있는 6명을 제외한 31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학생 106명(33.76%), 여학생 208명(66.24%)였고 학년별로는 1학년 68명(21.66%), 2학년 81명(25.80%), 3학년 122명(38.85%), 4학년 43명(13.69%)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80명(25.48%), 수도권(경기, 인천) 162명(51.59%), 비수도권 72명(22.93%)을 조사하였고 전공별로는 자연/공학 계열 114명(36.31%), 인문/사회 계열 116명(36.94%), 예체능 계열 84명(26.75%)이 참가하였다. 이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100명(남학생 42명, 여학생 58명)을 확인적 요인분석에 214명(남학생 64명, 여학생 150명)을 할당하였다.

측정도구

비판적 의식 척도(CCS: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Diemer와 동료들(2017)이 개발한 비판적 의식 척도에서 비판적 의식은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며 인지된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비판적 척도의 하위 요인은 비판적 반영(Critical Reflection)과 비판적 행동(Critical Action)으로 구분된다. 비판적 반영에는 불평등 의식(Perceived Inequality)과 평등주의(Egalitarianism)가 있고 비판적 행동은 사회 정치적 참여(Sociopolitical Participation)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판적 의식 척도에는 총 3개의 하위 요인이 있다. 불평등 의식 8문항, 사회적 참여 9문항, 평등주의 5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표 1. 타당화 연구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14)

변인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	106	33.76
	여	208	66.24
학년	1학년	68	21.66
	2학년	81	25.80
	3학년	122	38.85
	4학년	43	13.69
지역	서울	80	25.48
	수도권 (경기, 인천)	162	51.59
	비수도권	72	22.93
전공	자연/공학 계열	114	36.31
	인문/사회 계열	116	36.94
	예체능 계열	84	26.75
	전체	314	100.00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평등 의식은 교육 및 직업 기회에 대한 사회경제 및 인종적, 성별 제약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사회 정치적 참여는 지각된 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 정치적 활동 참여 정도를 측정한다. 평등주의는 사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Diemer와 동료들(2017)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불평등 의식 .90, 평등주의 .88, 사회정치적 참여 .85였다.

기회불평등인식 척도

기회불평등인식 척도는 동그라미 재단(2016)의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기회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태도로 이병훈(2017)이 분석하여 사용한 척도로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는 기회의 평등 보장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68로 나타났다.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는 임은미(2017)가 타당화 한 사회정의 옹호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이나 제도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사회 참여 척도

사회 참여 척도는 임은미(2017)가 타당화 한 사회정의 옹호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서 합법적인 사회참여를 묻는다. 총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는 정지선(2018)이 타당화 한 미묘한 인종차별 용인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서 실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총 6문항으로 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SPSS 25.0과 AMOS 25.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SPSS를 통해 100명의 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적합한 문항을 추출한 후에 AMOS를 사용하여 214명의 자료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명력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문항에 대해서 구인타당도와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비판적 의식 척도와 그 하위 요인과 유사한 맥락의 타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비판적 의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비판적 의식 척도 문항 22개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KMO의 표본적합도(MSA)는 .82로 나타나 본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결과는 $\chi^2=1554.33$, $p=.000$ 으로 유의수준이 .05보다 작아서 비판적 의식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요인분석이 가능하다. 비판적 의식 척도의 공통성을 확인한 결과 18번 문항은 제외한 모든 문항이 .40이상으로 나타나서 설명력이 충분하였다. 18번 문항은 비록 공통성이 .40보다 낮았지만 표 4의 요인부하량이 .40이상으로 나타나서 삭제를 보류하였다. 표 4의 요인부하량은 오블리민 회전 방법으로 6회 반복 회전하여 요인의 부하량이 큰 순서대로 정렬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총 3개의 하위

표 2.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N=100)

KMO의 표본적합도(MSA)	.82	
검정		
	Approx χ^2	1554.33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df	231
	p	.000***

*** $p<.001$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는 Diemer와 동료들(2017)의 연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고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0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판적 의식 척도의 factor 1은 불평등 의식, factor 2는 사회 정치적 참여, factor 3은 평등주의로 표 4와 같이 명명하였다. 또한 3개의 하위 요인의 고유값이 모두 1보다 크게 나왔고 누적분산비로 63.06%로서 60%이상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충분하였다.

비판적 의식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분석의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5에서는 비판적 의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 요인인 불평등 의식은 8문항으로 추출되었다. 8개 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지표에서 모델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값이 .40보다 낮은 4, 7번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CMIN/df이 2보다 크고 RMSEA가 .10보다 크게 AGFI가 .90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RMR이 .05이하로 나타났고 NFI, TLI, IFI, CFI, GFI가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나서 수정된 모델은 수용되었다. 비판적 의식 척도의 두 번째 하위 요인인 사회 정치적 참여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9문항으로 추출

표 3.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비판적 의식 문항별 공통성 분석(N=100)

문항 번호	문항	공통성
비판적 반영: 불평등 의식		
1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적다.	.63
2	가난한 아이들은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52
3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더 적다.	.80
4	여성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적다.	.59
5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적다.	.85
6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 성공 기회가 더 적다.	.77
7	여성은 성공할 기회가 적다.	.62
8	가난한 사람들은 출세할 기회가 적다.	.81
비판적 행동: 사회 정치적 참여		
9	시민 단체나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54
10	정당, 정치 관련 모임 또는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63
11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학교, 지역 사회 간행물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쓴 적이 있다.	.54
12	전화, 우편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제시한다.	.67
13	항의 행진, 정치 시위 또는 정치 모임에 참여한다.	.78
14	정치 캠페인에 참여했다.	.57
15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66
16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청원서에 서명한다.	.48
17	인권, 성적 권리와 관련된 단체 또는 그룹에 참여한다.	.73
비판적 반영: 평등주의		
18*	특정 그룹이 상위에 있고 다른 그룹이 하위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37
19	그룹이 동등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63
20	집단 평등이 우리의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1
21	모든 그룹의 사람은 삶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	.52
22	사람들을 더 평등하게 대하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57

* 역문항

표 4.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비판적의식의 요인부하량 (N=100)

문항 번호	factor		
	1	2	3
5	.92		
8	.90		
3	.89		
6	.88		
1	.80		
4	.72		
7	.71		
2	.70		
13		.88	
17		.85	
12		.81	
10		.76	
14		.75	
15		.74	
9		.73	
11		.71	
16		.56	
19			.79
22			.75
20			.74
21			.72
18			.55
요인명	불평등 의식	사회 정치적 참여	평등 주의
EA	7.47	3.94	2.46
분산비율 (%)	33.96	17.90	11.20
누적분산비율(%)	33.96	51.86	63.06

되었다. 9개 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지표에서 모델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SMC값이 .40보다 낮은 9, 10, 11, 16번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CMIN/df이 2보다 크고 RMSEA가 .10보다 크며 AGFI, TLI가 .90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RMR이 .05이하로 나타났고 NFI, IFI, CFI, GFI가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나서 수정된 모델은 수용되었다. 세 번째 하위 요인인 평등주의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5문항으로 추출되었다. 5개 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GFI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모델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SMC값이 .40보다 낮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설명력이 부족했던 18번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CMIN/df이 2보다 컸지만 RMR이 .05이하로 나타났고 AGFI, NFI, TLI, IFI, CFI, GFI가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도 .10이하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수정된 모델은 수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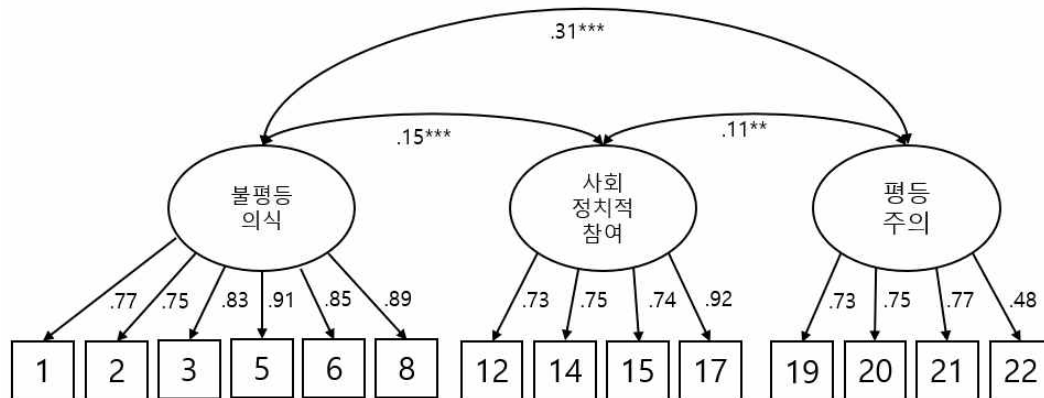
표 6에서는 비판적 의식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초기 모델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과한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22개 문항을 3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산하여 묶고 각 하위 요인을 공분산으로 연결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을 만들었다. 그 결과 모든 지표에서 모델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각 하위 요인에서 제거된 문항을 다시 제거하고 추가로 SMC값이 .40보다 낮은 13번 문항을 제거하여 재확인한 결과 CMIN/df이 2보다 RMR이 .05보다 컸고 GFI가 .09보다 작았지만 NFI, TLI, IFI, CFI가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도 .10이하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수정된 모델은 수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비판적 의식 척도는 14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각 하위

표 5. 비판적 의식 척도의 하위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214)

하위 요인		χ^2	df	CMIN/df	RMR	AGFI	NFI	TLI	IFI	CFI	GFI	RMSEA
불평등 의식	초기	322.46	20	16.12	.09	.65	.79	.72	.80	.80	.80	.27
	수정	45.58	9	5.06	.03	.86	.96	.94	.96	.96	.94	.14
사회 정치적 참여	초기	486.77	27	6.92	.09	.71	.85	.83	.87	.87	.83	.17
	수정	48.77	5	9.75	.04	.76	.93	.88	.94	.94	.92	.20
평등주의	초기	44.54	5	8.91	.08	.81	.85	.72	.86	.86	.94	.19
	수정	4.43	2	2.22	.03	.95	.98	.97	.99	.99	.99	.08

표 6. 비판적 의식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N=214)

모델	χ^2	df	CMIN/df	RMR	AGFI	NFI	TLI	IFI	CFI	GFI	RMSEA
초기	902.62	206	4.38	.12	.68	.74	.76	.79	.79	.74	.13
수정	227.91	74	3.08	.07	.81	.88	.90	.92	.92	.87	.10



*** $p < .001$, ** $p < .01$

그림 1. 비판적 의식 척도의 수정모형과 표준화 계수

요인별로는 불평등 의식 6문항, 사회 정치적 참여 4문항, 평등주의 4문항이 남았다.

구인타당도 분석 결과

본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 간의 변별타당도 및 각 문항들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변별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지수(AVE)를 잠재변수의 결정계수와 비교하여 AVE값이 크면 변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표 7을 보면 AVE값이 모두 r^2 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표 8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β 값이 .48 ~ .91로서 .05 ~ .95 사이에 있어서 모두 수용되었다.

표 7. 변별타당도 검증 분석(N=214)

	1	2	3
1. 불평등 의식	.74*		
2. 사회 정치적 참여	(.08)	.60*	
3. 평등주의	(.23)	(.06)	.44*
수용기준	AVE > r ²		

*는 AVE, ()는 결정계수(r²)

C.R.값은 모두 1.96이상이었고 개념신뢰도가 .75 ~ .94로서 모든 하위 요인에서 .50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각 문항들의 수렴타당도는 검증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비판적 의식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14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확인을 위해 내

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표 9을 보면 비판적 의식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87로서 .6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판적 의식 척도의 하위 요인인 불평등 의식은 .93, 사회 정치적 참여는 .85, 평등주의는 .78로서 내적일관성 계수가 모두 .6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비판적 의식 척도와 유사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수렴타당도 추정을 위해 비판적 의식 척도와 유사한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기회불평등인식,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사회 참여,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비판적 의식 척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을 보면

표 8. 개념신뢰도 분석(N=214)

구분	문항	비표준 요인부하량	표준요인 부하량(β)	SE	C.R. (t-value)	측정오차	개념 신뢰도
불평등 의식	1	1.00	.77			.30	.94
	2	.92	.75	.08	17.13***	.30	
	3	1.04	.83	.08	19.57***	.22	
	5	1.25	.91	.09	16.26***	.15	
	6	1.26	.85	.09	13.53***	.27	
	8	1.29	.89	.09	14.28***	.21	
사회 정치적 참여	12	1.00	.73			.35	.86
	14	1.18	.75	.11	10.56***	.41	
	15	1.47	.74	.14	10.33***	.71	
	17	1.51	.92	.12	12.21***	.16	
평등주의	19	1.00	.73			.50	.75
	20	1.07	.75	.12	9.08***	.53	
	21	.98	.77	.10	8.20***	.39	
	22	.74	.48	.12	6.29***	1.03	

*** p<.001

표 9. 최종 문항의 신뢰도 분석(N=314)

번호	문항	Cronbach's α	
비판적 반영: 불평등 의식			
1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적다.	.93	
2	가난한 아이들은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3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더 적다.		
5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적다.		
6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 성공 기회가 더 적다.		
8	가난한 사람들은 출세할 기회가 적다.		
비판적 행동: 사회 정치적 참여			
12	전화, 우편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제시한다.		.85
14	정치 캠페인에 참여했다.		
15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17	인권, 성적 권리와 관련된 단체 또는 그룹에 참여한다.		
비판적 반영: 평등주의			
19	그룹이 동등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78	
20	집단 평등이 우리의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	모든 그룹의 사람은 삶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		
22	사람들을 더 평등하게 대하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전 체		.87	

표 10. 비판적 의식 척도와 유사 범인의 상관관계 분석(N=314)

	1	2	3	4	5	6	7	8
1	1							
2	.83***	1						
3	.66***	.30***	1					
4	.67***	.35***	.21***	1				
5	.54***	.55***	.15**	.42***	1			
6	.53***	.39***	.27***	.52***	.48***	1		
7	.23***	.02	.41***	.12*	.07	.27***	1	
8	-.39***	-.50***	-.12*	-.13*	-.56***	-.24***	.16**	1

* $p < .05$, ** $p < .01$, *** $p < .001$

1. 비판적 의식, 2. 불평등 의식, 3. 사회 정치적 참여, 4. 평등주의, 5. 기회불평등인식, 6. 환경 변화 필요 인식, 7. 사회 참여, 8.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비판적 의식은 기회불평등인식,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사회 참여,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각각 $r=.54, p<.001, r=.53, p<.001, r=.23, p<.001, r=-.39, p<.001$ 로 나타났고 비판적 의식의 각 하위 요인들도 불평등 의식과 사회 참여를 제외하고 모든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의식 척도를 번안하고 현지화 및 타당화하여 국내의 비판적 의식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비판적 의식은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며 인지된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배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수의 연구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청년들의 행동 변화 주요 요인으로 비판적 의식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판적 의식이 연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비판적 의식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청년 계층의 소외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판적 의식에 대한 연구는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행동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iemer와 동료들(2017)이 개발한 비판적 의식 척도(CCS)를 국내 현실에 맞춰 번안한 한국형

비판적 의식 척도(Korean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KCC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대학생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Diemer와 동료들(2017)의 비판적 의식 척도를 번안하였다. 1차 번역에서는 원안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였다. 그 결과 척도가 개발된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예로서 원안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률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교육을 고등교육으로 번안해야 했다. 또한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라는 용어 역시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외국 출신자 비율을 가진 국내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특정한 출신배경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비판적 의식 척도의 22개 문항을 확인하였다. 이때 검증의 독립성 유지, 과적합성 방지, 타당성 향상, 재현성,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자료를 2그룹으로 분리하여 100명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나머지 214명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할당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KMO의 표본적합도(MSA)를 통해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요인분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항의 비판적 의식에 대한 설명력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60%가 넘고 요인부하량이 유의미하게 커서 문항들이 비판적 의식을 잘 대변하고 있었다. 설명력이 비교적 작았던 1개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의미가 있게 나와서 제거를 보류하였다. 결론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22개 문항이 모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하위 요인에 따른 문항 배치 역시 Diemer와 동료들(2017)의 연구와 동일하게 분류되었다.

셋째, 비판적 의식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과한 22개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각 하위 요인 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비판적 의식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하위 요인들을 공분산으로 연결하여 비판적 의식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을 만들었다. 검증 결과 비판적 의식의 하위 요인인 불평등 의식은 2개 문항이 제거되어 6개 문항이 남았고 사회 정치적 참여는 5개 문항이 제거되어 4개 문항이 남았으며 평등주의는 1개 문항이 제거되어 4개 문항이 남았다. 이를 통해 비판적 의식 척도는 22개 문항 중에서 14개 문항이 추출되었고 누적분산비도 60%이상으로 나와서 설명력도 충분하였다. 구인타당도 검증에서도 14개 문항이 모두 수용되었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추출된 14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비판적 의식 척도의 내적일관성 계수가 .87로서 우수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비판적 의식의 하위 요인인 불평등 의식, 사회 정치적 참여, 평등주의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각각 .93, .85, .78로 신뢰도가 충분하였다.

다섯째, 비판적 의식 척도와 유사한 척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유사 척도는 기회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보여주는 기회불평등인식 척도,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이나 제도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 합법적인 사회 참여를 확인하는 사회 참여 척도, 실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공정

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가 사용되었다. 비판적 의식은 이런 유사 척도와 상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났다. 비판적 의식은 기회불평등인식 척도,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 사회참여 척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높다는 의미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높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비판적 의식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부조리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판적 의식이 높을수록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본 검증의 결과는 비판적 의식의 수렴타당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통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비판적 의식 척도는 총 14개 문항 3개의 하위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비판적 의식 척도와 각 하위 요인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의식은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며 인지된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문항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판적 반영과 비판적 행동이라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틀로 구성되는데 먼저 비판적 반영은 불평등 의식과 평등주의가 해당된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불평등한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과 평등에 대한 우리의 이상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비판적 행동은 사회의 현실에 대응하여 사회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적 반영과 비판적 행동을 검증하는 문항을 통해서 비판적 의식의 개

념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비판적 의식 척도의 하위 요인인 불평등 의식은 교육 및 직업 기회에 대한 사회적 경제 및 인종적, 성별 제약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교육과 직업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교육받을 기회와 좋은 직업을 획득할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불평등이 인종이나 성별 등의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천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청년기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김민진, 박정운, 2022). 따라서 불평등 의식을 확인하는 것은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특이한 결과는 척도에서 차별받는 성별로서 여성을 설정하였지만 설문에 참여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2배에 가까웠음에도 여성의 차별을 언급한 2문항은 모두 요인분석 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 억압을 받아왔던 여성들이 사회의 발전에 따라 권리를 상당 수준 회복하여 여성 차별 해소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여성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항들에 대해서 여성들의 응답 평균은 3.0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높다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치일 수 있다. 다만 학년별 분석에서 여성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에 비해서 남성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1학년은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학년보다 비교적 낮았고 남녀간의 차이도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성(3.18점)이 여성(2.95점)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4학년은 1학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4학년 여성의 평균 점수(3.65점)는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평균 점수(2.00점)는 다른 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성별간 차이도 다른 학년에 비해 4학년이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차별을 인식하는 시점이 취업이라는 사회 진출 시점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감안하여도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의 여성 차별에 대한 문항 삭제로 인해 불평등 의식에서 성별 제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추출된 문항에서 사용된 특정한 출신배경이라는 용어에 인종과 함께 성별이 포함된다고 인식될 수 있다. 출신이라는 말은 사회적 신분으로 정의 되고 신분의 형법상 정의에는 성별도 포함된다. 따라서 추출된 6문항이 원칙도의 불평등 의식을 대체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비판적 의식 척도의 하위 요인인 사회 정치적 참여는 지각된 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 정치적 활동 참여 정도를 측정한다. 문항 구성의 특징은 사회의 차별적 불평등적 현실의 인식에만 머물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을 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확인하는 과정의 의미는 사회와 개인의 변화를 위해 숙고를 통한 현상과 원인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변화는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영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

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사회는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의 사회 정치적 참여 문항 9문항 중에서 5문항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문항은 모두 적극적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문항으로서 정당이나 시민 단체 가입, 정치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글쓰기나 청원서 서명, 정치 시위 참여 등의 활동을 나타낸다. 이는 원칙도가 개발된 미국과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양대 정당 중 한 정당에 가입된 대학생 당원만 30만명 이상이었지만 한국은 양대 정당 중 한 정당의 대학생 당원 수가 300명 미만이였다. 미국과 한국의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정치참여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조사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정상혁, 2019; 주혜빈, 김재연, 2018). 다만 남은 4문항도 사회 정치적 의견을 공공기관에 제시, 정치 캠페인에 참여,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토론 참여, 인권 단체 참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항들은 원칙도에서 사회 정치적 참여에 대해 정의한 지각된 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 정치적 활동 참여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비판적 의식 척도의 하위 요인인 평등주의는 사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결국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보편화될수록 사회는 더욱 평등해지고 차별은 해소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에서 1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이는 원칙도의 유일한 역문항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긍정문으로 표현하다보니 조사 대상에게 혼란을 주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설명력이 낮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은 4문항은 평등 지향, 기회 평등의 당위성, 평등의 효용이라는 의미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사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정도라는 평등주의의 정의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비판적 의식 척도의 3개 하위 요인들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생각과 행동은 상호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행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개선될 수도 있고 숙고의 과정이 행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는 그 인과 관계를 검증하지 않았지만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생각과 행동이 모두 중요하고 상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용으로 제작되었다. 대학생이 우리 사회의 가까운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 전반에 미치는 비판적 의식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판적 의식 척도를 타당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칙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만을 검증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요인분석 과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성차별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문항들에 대해서 여성의 응답 점수와 남성의 응답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별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

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원척도의 하위 요인인 사회 정치적 참여 관련 9 문항 중 5문항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적극적인 정치활동 참여 관련 요인을 상당 부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조사 대상을 감안하더라도 비판적 의식을 온전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 문화에 맞는 사회 정치적 참여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실질적 인구 분포에 따른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국민의 50%정도인 상황에서 본 조사 표본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너무 높게 나온 것은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하지 못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변인 측정을 위해서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편향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응답 왜곡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증 문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판적 의식 척도가 한국어로 번안되어 타당화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판적 의식은 소외 계층의 진로정체감, 진로몰입, 일 중시성 및 결과기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간은 비판적 의식의 강화를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국내에서도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비판적 의식

의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Diemer & Hsieh, 2008; Watts et al., 1999). 이를 통해 비판적 의식과 관련된 심리 프로그램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민진, 박정윤 (2022). 균형적 시간관이 청년기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2), 163-186.

김은선, 이희수 (2018).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8(1), 115-136.

김태선, 이 주, 신연주 (2020). 다문화 시대의 상담자 교육: 비판적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중심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67-692.

동그라미재단 (2016). 기회불평등 2016 생애주기별 경험과 인식: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 [서베이 데이터]. <http://www.thecircle.or.kr/kor/business/support-rnd.html?depth1=7&depth2=51&depth3=57>

안계한, 김민희 (2020).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4), 457-477.

안진아, 정애경 (2019). 일의 심리학 이론의 한국 진로상담 적용 방안. 상담학연구, 20(2), 207-227.

- 윤희웅 (2010.10.12). [KSOI의 여론스코프] “우리 사회는 불공정” 74%. 주간경향.
<http://www.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010061816051>
- 이병훈 (2017).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 태도의 인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157-179.
- 이성균 (2009).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69-581.
- 임은미 (2017). 한국 상담자를 위한 사회정의 옹호역량 척도(SJACS-K)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8(6), 17-36.
- 정상혁 (2019.09.21.). 美 ‘2030 정치클럽’ 30만명 “정치인은 우릴 두려워한다... 弱者 아니라란걸 보여줬기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1/2019092100182.html
- 정지선 (2018). 한국관 미묘한 인종차별 용인 척도 타당화. *인문사회* 21, 9(6), 1113-1128.
- 정한울, 이관후 (2021.05.28.). [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한국의 불공정 실태,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리서치*.
<https://hrcopinion.co.kr/archives/11716>
- 주혜빈, 김재연 (2018.07.12.). 특별기획, 대선 2017(24) 정당 청년조직 ① 더불어민주당. *Story of Seoul*.
<https://www.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3>
- 통계청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1PageDetail.do?idx_cd=1063
- Baker, A. M., & Brookins, C. C. (2014). Toward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Listening to the voices of Salvadoran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8), 1015-1032.
- Christens, B. D., Collura, J. J., & Tahir, F. (2013). Critical hopefulness: A person-centered analysis of the intersection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2, 170-184.
- Diemer, M. A. (2009). Pathways to occupational attainment among poor youth of color: The role of sociopolitical developmen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1), 6-35.
- Diemer, M. A., & Blustein, D. L. (2006). Critical consciousness and career development among urban yout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2), 220-232.
- Diemer, M. A., & Hsieh, C. A. (2008). Sociopolitical development and vocational expectations among lower socioeconomic status adolescents of color.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6(3), 257-267.
- Diemer, M. A., & Li, C. H. (2011). Critical consciousness develop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marginalized youth. *Child Development*, 82(6), 1815-1833.
- Diemer, M. A., Rapa, L. J., Park, C. J., & Perry, J. C.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Youth & Society*, 49(4), 461-483.
- Freire, P. (2021). *Education for Critical Consciousness*. Bloomsbury Publishing.
- Grzanka, P. R., Santos, C. E., & Moradi, B. (2017). Intersectionality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5), 453-457.

- Hernández, P., Almeida, R., & Dolan Del Vecchio, K. (2005). Critical consciousness, accountability, and empowerment: Key processes for helping families heal. *Family Process, 44*(1), 105-119.
- Kenny, M. E., Blustein, D. L., Liang, B., Klein, T., & Etchie, Q. (2019). Applying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for transformative career educa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6*(6), 623-636.
- Kieselbach, T., van Heeringen, K., La Rosa, M., Lemkow, L., Sokou, K., & Starrin, B. (Eds.). (2013). *Living on the edge: An empirical analysis on long-term youth un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Vol. 11)*.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Major, B., Kaiser, C. R., & McCoy, S. K. (2003). It's not my fault: When and why attributions to prejudice protect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6), 772-781.
- Martín-Baró, I. (1996). *Writings for a liberation psych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 McWhirter, E. H., & McWhirter, B. T. (2016). Critical consciousness and vocational development among Latina/o high school youth: Initial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measur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3), 543-558.
- Ramos-Zayas, A. Y. (2003). *National performances: The politics of class, race, and space in Puerto Ric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in, R. Q., Ezeofor, I., Smith, L. C., Welch, J. C., & Goodrich, K. M. (2016).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ntemporary Critical Consciousness Mea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2), 210-223.
- Shin, R. Q., Smith, L. C., Lu, Y., Welch, J. C., Sharma, R., Vernay, C. N., & Yee, S. (201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ntemporary Critical Consciousness Measure II.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5*(5), 539.
- Thomas, A. J., Barrie, R., Brunner, J., Clawson, A., Hewitt, A., Jeremie Brink, G., & Rowe Johnson, M. (2014). Assessing critical consciousness in youth and young adul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4*(3), 485-496.
- Watts, R. J., & Abdul-Adil, J. (1997). Promoting critical consciousness in young, African American men.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16*(1-2), 63-86.
- Watts, R. J., Diemer, M. A., & Voight, A. M. (2011). Critical consciousnes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11*(134), 43-57.
- Watts, R. J., Griffith, D. M., & Abdul-Adil, J. (1999). Sociopolitical development as an antidote for oppression-theory and ac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2), 255-271.
- Watts, R. J., Williams, N. C., & Jagers, R. J. (2003). Sociopolitical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1-2), 185-194.
- Windsor, L. C., Jemal, A., & Benoit, E. (2014). Community Wise: Paving the way for empowerment in community ree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37*(5), 501-511.
- Zimmerman, M. A., Ramírez-Valles, J., & Maton,

K. I. (1999). Resilience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male adolescents: A study of the protective effects of sociopolitical control on their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733-751.

논문 투고일 : 2023. 09. 11

1 차 심사일 : 2023. 09. 15

2 차 심사일 : 2023. 11. 06

게재 확정일 : 2023. 11. 15

Validation of the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Seon-Mi Ahn

Yongin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Young-Kwon Hyun

Dankook University

The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CCS) is a scale developed by Diemer and colleagues (2017) that can measure the capacity of the oppressed or marginalized people to critically analyze their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support societal equality, and take action to change the perceived inequities. In this study, we validated the CCS for Korea by adapting and localizing the scale and validating it among university students. Content validity was verified by having five individuals with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in psychology evaluate the suitability of the translated items. Afterwards,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verified through a survey of 314 university students nationwide using the CCS, along with the opportunity inequality recognition scal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environmental change scale, social participation scale, and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To verify the scale's valid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confirming three subfactors. Then,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arried out, where 14 items out of the original 22 were retained. Th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se 14 items were found to be satisfactory. Additionally, i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CCS and similar scales, a significant clear relationship was found. The CC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cales such as opportunity inequality recognition, need for environmental change recogni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Based on these results, the CCS can be considered valid and reliable. Finally, the limitations and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ritical consciousness, perceived inequality, socio-political participation, egalitarianism, youth issues

부 록

대학생용 한국판 비판적 의식 척도(Korean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KCCS)

다음 문항들을 보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상황 및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떠오른 반응에 따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번호	문 항 내 용	1	2	3	4	5
1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적다.	1	2	3	4	5
2	가난한 아이들은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1	2	3	4	5
3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더 적다.	1	2	3	4	5
4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적다.	1	2	3	4	5
5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 성공 기회가 더 적다.	1	2	3	4	5
6	가난한 사람들은 출세할 기회가 적다.	1	2	3	4	5
7	전화, 우편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제시한다.	1	2	3	4	5
8	정치 캠페인에 참여했다.	1	2	3	4	5
9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1	2	3	4	5
10	인권, 성적 권리와 관련된 단체 또는 그룹에 참여한다.	1	2	3	4	5
11	그룹이 동등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1	2	3	4	5
12	집단 평등이 우리의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3	모든 그룹의 사람은 삶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	1	2	3	4	5
14	사람들을 더 평등하게 대하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1	2	3	4	5
<hr/>						
	요인	문 항				문항수
	불평등 의식	1 ~ 6				6
	사회 정치적 참여	7 ~ 10				4
	평등주의	11 ~ 14				4